

고노 타로 외무대신 귀하

문화·인적 교류를 위한
‘일한 모델’의 추진을
-제언-

2018년 10월 3일 (수)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외무성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일한 교류에 관한 제언 문화·인적 교류를 위한 ‘일한 모델’의 추진을

이 제언은 고노 타로 외무대신의 자문을 받은 전문가 회의에서 양국 간의 문화·인적 교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이념에 대해 논의한 후, 양국 관계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큰 틀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요지】

- 1998 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 이후 20 년 동안, 일한 관계는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무역 총액은 2 배 이상, 인적 교류는 3 배 이상 확대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해야 한다.
- 과거 한 때 불행한 관계에 놓여 있던 일한 양국이 과거와 진지하게 마주하고 미래를 향해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50 년 넘게 꾸준히 쌓아 온 이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면 ‘일한 모델’로서 후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양국이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대등한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아시아를 견인하고 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세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 교류의 기본은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양국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한편으로는 비영리 교류에 대한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교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제도 등을 본래 목적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완화·제거하는 일이다.
-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류를 통해, 비록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상대국에 있는 ‘개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지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에는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와 ‘권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시민 사이의 주체적인 신뢰 관계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상대국 문화의 애호가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문화를 고차원적으로 해석·이해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 또한 ‘일한 모델’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넓은 의미의 지적 교류 촉진 및 정보 환경의 정비 외에 양국에서 각 분야의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표창과 양국의 정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문화 교류는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발신을 계속하는 것이다.
- 인적 교류의 가치는 시민이 상대국을 방문해 사람,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하는 데 있다. 특히 고정 관념을 갖지 않은 어린이·청소년 및 영향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시니어층, 나아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NGO/NPO 의 교류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관광에서는 인바운드뿐 아니라 아웃바운드(일본인이 한국 및 기타 외국을 방문하는 것)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일한을 ‘하나의 여행지’ 로 여기고 역외 관광객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과 친근한 먹거리 및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은 작지 않다. ‘식(食)’ 분야의 연수·취업 기회와 관련해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가능한 한 완화해야 한다. 또 지역이나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 교류 외에도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에 상대국 청년을 초청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웃 나라라고 해도 상호 인식의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쌍방이 여기서 말하는 우호의 씨앗을 힘껏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첫머리에

1998년 10월 8일, 당시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일한 공동 선언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일한 파트너십-’ 을 발표했다. 올해는 그로부터 20 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이 20년 사이에 일한 양국의 무역 총액은 2 배 이상, 인적 교류도 3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관계는 눈부신 진전을 보였다. 물론 양국 간에는 아직까지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해낸 지난 20년 간의 넓고 깊어진 교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먼저 이 긍정적인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며, 그 이면에는, 양국의 민관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극복하려는 끊임 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세계 역사로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듯이, 이웃한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를 품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법이다.

일한 양국 간에도 주로 역사 문제에 기인하는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 일본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발신해 온 자세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해 견지하는 동시에,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일한 관계는 제반 현안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상대국을 비판하는 언론 공간이 있다는 점과 양국 관계에 무관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 또한, 미래의 무한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우리의 성숙된 민주 사회가 갖는 여유와 잠재력의 표출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국 간에는 이미 풍성히 열매 맺은 많은 교류가 폭넓게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양국 시민 사이의 이해 또한 꾸준히 깊어지고 있다. 교류와 대화의 테이블은 무수히 존재하며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69년에 발족한 일한경제인회와의와 1993년에 발족한 일한 포럼의 연차 회의는 한 번도 중단된 일이 없다.

우리는 ‘파트너십 선언’ 이전의 이러한 흐름이, 이 선언 이후 20년간 관계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대 역사에서 과거

한 때 불행한 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가 이렇게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더불어 번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 양국이 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자신감과 자각을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노력은 진정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0년 이상 꾸준히 쌓아 온 이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면 ‘일한 모델’로 후세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기본 인식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향후 교류의 한층 발전을 지향하며 일한이 공유해야 할 기본 인식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1. 일한 관계는 두 나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하나이다.
2. 일한 양국 국민이 상호 신뢰를 높이는 일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할 토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래 일어날 수 있는 정치·경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일한 사이에는 지금까지 민관을 통해 많은 문화 교류 등의 시책이 펼쳐졌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전 조치 가운데 유효한 것은 지속하는 한편,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일한 관계는 ‘현재의 일본’ vs ‘현재의 한국’이라는 편협한 관계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시아를 견인하는 파트너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방이라는 플러스 섬 게임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한 양국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잠재력은 크다.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일한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사고 방식이다.
5. 글로벌화와 IT 혁명의 진전에 따라 금융, 정보, 기술, 사람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으며, (주권)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국민의 활동을 최우선시 하면서 지금까지 일한의 민간(시민)과 지역(지방) 차원에서 쌓아 온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그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적·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 간 정치적·경제적 협의에만 기초한 평화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만장일치를 받은 지속가능하며 건실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므로 평화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지적 및 도덕적 결속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현장 전문의 취지를 다시금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타국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의 단편적 지식·경험 및 지역·사회에 이어져 온 기억과 구전, 거듭된 보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반드시 중립적·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보도나 구전은 그 성격상 부정적인 사실에 치우치기 쉽고, 이는 쓸데없이 상대국 시민을 자극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시민은 상대를 표현함에 있어 부정적이고 ‘뜰에 박힌 말’과 거리를 두고, 늘 주체적으로, 상대국 시민을

개인으로서(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으로서가 아니라)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상대국에 있는 지인 ‘개인의 얼굴’ 을 떠올릴 수 있다면, 쓸데없는 반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7. 정부는 국민 간에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8.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해 체재하며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 문화와 풍토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9. 일한 양국에는 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 와 ‘권위’ 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때때로 상대 시민에 대한 긍정적인 속내를 겉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명분만을 강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는 시민 사이에 더 깊고 적극적인 상호 이해를 쌓음으로써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간의 상호 인식 개선에는 시간을 요하며, 또 우여곡절을 거치기 마련이다. 민관이 더불어 끈기를 갖고 우호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상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주로 문화 교류, 관광·인적 교류, 식(食)·스포츠 교류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아래에 향후 양국 정부가 이들 분야에서 일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가져야 할 방향성과 취해야 할 시책에 대해 제언한다.

1 문화 교류의 ‘일한 모델’ 을 추진한다.

1-1 방향성

문화 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상기의 ‘기본 인식’ 5. 와 같다. 지나친 간섭은 삼가야 하지만, 늘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류의 촉진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지원은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일한 간에는 상대국 문화에 대한 애호가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서로의 문화를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일본정부관광국, 일본무역진흥기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일뿐 아니라 상대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일본 사회에 널리 깊이 소개하는 열린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즉, 단순히 ‘상대를 안다’ 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이 ‘앞으로는 일한이 힘을 합쳐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구축해 간다’ 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민간의 개인·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교류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여파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성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양국 간 교류 사업은 그때 그때의

정치·외교적 현안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1-2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문화 교류는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양쪽 모두 중요하다.

대중문화에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로 침투하는 힘이 있다. 일본에는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팬이 있고, 한국에는 일본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팬이 있다. 이 가운데 상업적인 교류는 사업상 성립되는 한 자연스럽게 확대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와 같이 선순환을 낳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영화·음악·드라마 등을 상대국 시장에 소개하거나 일한 합작을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상업적인 추진이 어려운 전통문화 교류에는 정부의 공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미술·예술 트리엔날레 등을 일한이 공동 주최하거나 예술 작품을 공동으로 전시하는 등의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한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일한 혼성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공 사례인 ‘한일축제한마당’에 더욱 내실을 기해, 문화 교류에 있어서 ‘일한 모델’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1-3 지적 교류·정보 환경·표창

역사·문화·문예·사상 등에 관한 일한의 대표적인 고전 및 근현대 작품을 상대국 언어로 번역해 공동 출판하는 일은 양국에 있어 지적 교류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 작업에 ‘일한 지식 공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 추진하면 긴 안목으로 보아 양국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문화 교류뿐 아니라 양국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상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양국과 관계국이 축적해 온 중요 외교 문서와 양국 관계에 관한 총리 담화, 관방장관 담화, 외무대신 담화, 외무성 보도 발표 등의 자료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어·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중국어로도 게재해야 한다. 나아가 ‘일한 공문서도서관’과 같은 사이트의 설치도 양국 관계의 이해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상대국 언어로 된 1차 정보의 제공은 지적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국의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전통문화·대중문화의 두 분야에서 폭넓게 표창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일한 문화 교류에 종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때때로 나타나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불식하고 양국 관계의 긴밀화를 촉진할 것이다.

2 인적 교류의 ‘일한 모델’을 추진한다.

2-1 방향성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 준비된 교류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낳는 것은 틀림없다. 보조금 등 공적 자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확충을 기대한다. 걸핏하면 파이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양국 정부 관계자 간의 교류·상호 이해도 간부·신참을 불문하고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외교 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정부는 그로 인해 민간과 지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치 관계가 악화돼도 문화 교류는 발전시키도록’ 하는 유네스코의 권고(1963년)에 따른 방침을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어린이·청소년 교류

모든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적 교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상호 이해 촉진의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류가 주축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JENESYS(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 방일 프로그램의 유효성은 각종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독일과 프랑스의 성공 사례(‘엘리제 조약’에 따른 청소년 교류 실적은 50년간 800만 명 규모)를 염두에 두고, 교류 사업을 더욱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일한문화교류기금이 과거 35년간 실시한 교류사업은 3~4만 명 규모).

오랫동안 중고생의 해외 수학여행지로 1위였던 한국이 최근 들어 격감하는 등, 일부 청소년 교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를 비롯한 방일 외국인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홈스테이와 홈비지트의 효과는 크다. 이런 것들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젝트(대학 간 학점 교류 제도)의 일한판을 조기에 실현했으면 한다. 이 때는 양국의 고학력 지향을 반영해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수준의 인재 교류도 자유화·활성화시키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

2-3 지도층·시니어 교류

양국 청소년의 이해와 우정이 깊어져도 영향력이 강한 오피니언 리더(정치인·학자·저널리스트 등)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지도층의 교류 사업에 지금까지보다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학을 연구·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반년에서 1년 동안, 비교적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재하는 저널리스트 펠로우십도 실시해야 한다. 또, 양국의 학교장과 교교에서 상대국의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각종 학회의 책임있는 관계자 간의 교류·일본 체험 프로젝트 등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양국에게는 시니어층에 대한 배려도 과제가 될 것이다. 시니어층이 사회 전반과 차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방일 한국인과 방한 일본인 모두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대에 이른다. 방일한 한국인 중장년층이 ‘안전, 청결, 신용, 배려, 마음 씀씀이, 정중, 친절, 섬세, 아름다움, 유연함, 간결함, 안심’이라는 긍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귀국 후에 언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양국 시니어층의 큰 관심사는 상대국의 안전이므로 안전 보장과 재해 대책 등의 환경 정비에 힘써야 한다.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나 교양·취미 활동을 증진하는 데 관심이 높은 양국 중장년의 교류, 실버 교류에 지원책과 장려책을 마련해도 좋을 것이다.

2-4 비즈니스·비영리 사업 교류

일한 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온난화, 환경, 방재, 연금, 누적 채무, 소득 격차, 수도권 집중과 지역 쇠퇴 등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들 과제에 관해 양국의 NPO/NGO가 공동으로 활동을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매칭 사업 등은 정부(각 성청(省庁)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을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특히, 재해 대책에 관한 일한 교류는 한국 측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분야이므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상대국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일한 양국의 젊은이가 상대국의 기업과 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매칭또는 소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 등의 일한 교류 사업에 대한 기부 행위나 CSR활동이 수월하도록 환경 조성 과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3 관광의 ‘일한 모델’ 을 추진한다.

3-1 방향성

상대국의 문화·사회를 알기 위해, 또는 자국을 알리기 위해 직접 이국을 체험하는 관광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 국가·지역과 비교해 보면 해외여행(아웃바운드)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국민의 수가 인구에 비해 많지 않다. 일본인의 해외여행을 촉진하는 것은 국제 상호 이해의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공·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일본의 안정적인 존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다양한 항공 노선망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를 확대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한 간 상호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도 검토해야 한다. 2002년 일한 월드컵축구대회 당시 나리타·인천 두 공항에서 실시한 사전입국심사제도(출발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는 사전 심사 제도)를 부활시켜 양국이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2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일한 간에는 현재 25개(휴향 노선 포함) 항로에서 1주당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항하고 있다. 이는 일본발 외국행(국가별)으로는 최다이며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주부 등의 거점 공항뿐 아니라 많은 지방공항이 일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즉, 지역 간 차원을 포함해 관광 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노선 유지를 위해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바운드는 근래 들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나 방일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의 다언어화, 교통 전자 IC 카드의 상호 이용 실현을 위한 검토 등). 동일본대지진 이후 급감한 동북지방 방문객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태풍,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인프라 및 정보의 취약성이 드러나 방문객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웃바운드의 확대를 위한 성장 전략으로서 미성년자가 여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 측이 일본에서 실시하는 관광 홍보에 일본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일한’을 ‘하나의 목적지’로 여기고, 아세안, 북미, EU 국가 등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정부관광국과 한국관광공사의 공동 관광 홍보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한다.

4 식문화·스포츠 교류의 ‘일한 모델’을 추진한다.

4-1 방향성

일상 생활에서 식문화와 스포츠의 두 분야는 매우 친근하다. 일한 양국에는 상대국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 있으며, 소매점에서는 상대국 제품(식재료 및 음료 등)이 가정용으로도 판매되고 있어 양국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상대국을 관광하는 목적이 맛집 탐방인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조리·제과 제빵·영양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도 많다. 한편 각종 경기를 보아도 국제대회부터 지역 간·학교 간 친선대회에 이르기까지 양국 팀 간의 시합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야구든 축구든 자국의 구단 및 클럽에서 상대국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으로 이어지는 매개체로서 앞으로도 두 분야의 교류는 발전시켜 가야 한다.

물론 국민의 미각이나 스포츠 취향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두 분야는 건강·교육·환경·자원과 직결되는 문제 말고도 비즈니스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역경과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교류의 진흥 방안·지원 방안, 규칙 제정,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역할도 작지 않다.

앞서 거론한 전통문화·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양국을 둘러싼 식문화와 스포츠의 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거나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표창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것 또한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2 식문화 교류

한국에서는 일본 음식이,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이 각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용국의 취향을 반영한 현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한국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반적으로 ‘일본 음식(和食)’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일본 요리’로 보급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음식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인재를 통한

일본 요리의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해 ‘식’ 과 관련한 연수·취업 의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본요리의 보급 등을 담당하는 단체 설립 지원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식’ 에 대해 같은 시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주류(맥주, 일본주, 소주 등)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테면 일본주의 경우, 요리와 어울리는 품목 선정, 구매, 관리, 음용 방법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춘 기키자케시, 즉 일본주 소믈리에의 존재가 있어야, 일본주의 건전한 보급과 발전으로 이어지고 일본주 애주가도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적인 기키자케시 자격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에는 주류를 비롯한 일부 일본산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하겠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식생활 교육’ 이 성행하고 있다. 애초에 양국의 ‘식’ 에는 기원이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 이를 서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4-3 스포츠 교류

각종 스포츠의 국제대회에서 양국은 자주 ‘숙명의 라이벌’ 이라고 불린다. 경쟁 상대의 존재는 실력 향상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나, ‘일한전’ 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양국에 존재한다. 그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는 스포츠 교류의 의의를 반감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관계 부처를 포함한 양국의 스포츠 관계자는, 스포츠 교류에 대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아의 스포츠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북미 및 유럽의 스포츠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 양국이 장래를 내다본 공통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국의 프로야구 구단이 아시아리그를 만들어 승자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승자와 대결하는 시리즈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지역 간, 학교 간 스포츠 교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부의 인터하이’ 라고 불리는 전국고교종합문화제에는 한국, 미국, 중국의 고등학생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처럼 양국에서 중고생·대학생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 대회에 상대국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세대에 의해 e스포츠의 일한전이 펼쳐져도 좋을 것이다.

스포츠 교류에는 경비가 필요한데, 스폰서(기업 및 방송국) 입장에서는 채산이 맞는 스타 선수가 참가하지 않으면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또는 기업 등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다.

【참고 1】 전문가 회의 일정

- 제 1 차 회의: 8 월 10 일 (금) 오전 (주제: 문화 교류)
- 제 2 차 회의: 8 월 30 일 (목) 오후 (주제: 관광·인적 교류)
- 제 3 차 회의: 9 월 14 일 (금) 오전 (주제: 음식과 스포츠 교류)
- 제 4 차 회의: 10 월 3 일 (수) 오전 (제언의 제출)

【참고 2】 전문가 회의 구성원

- 곤도 세이치 (近藤誠一) (의장) 곤도 문화·외교 연구소 대표, 전 문화청 장관
- 구로다 후쿠미 (黒田福美) 배우
- 오구라 기조 (小倉紀蔵) 교토대학 교수
- 고하리 스스무 (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 사와다 가쓰미 (澤田克己)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
- 니시노 준야 (西野純也) 게이오기쥬쿠대학 교수

(제 1 차 회의 게스트)

- 15 대 심수관 (沈壽官) 사쓰마 야키 도예가
- 오덕주 (吳德周) 아뮤즈 아시아사업부 선임차장 겸 아뮤즈코리아 부사장
- 하라다 도모아키 (原田知明) 아뮤즈퀘스트 사장

(제 2 차 회의 게스트)

- 고레나가 가즈오 (是永和夫)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히메지 다카히로 (姫路貴弘) 일본항공 국제제휴부 매니저 (전 한국지점장)
- 가미모리 히로아리 (神森啓有) JTB 글로벌사업본부 조사역
(전 롯데 JTB 공동 대표이사 사장)
- 하루키 이쿠미 (春木育美) 일한문화교류기금 업무집행이사·사무국장

(제 3 차 회의 게스트)

- 김성근 (金星根)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코치 고문 (전 한화 이글스 감독)
- 나카무라 데쓰 (中村哲) 나카무라 조리제과전문학교 이사장·교장,
나카무라 아카데미 (나카무라 조리제과전문학교 서울교)
이사장
- 유가와 가즈유키 (湯川和之)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 사무총장
- 구마가이 겐 (熊谷謙) 구마가이주류주식회사 대표, 한국지주수입업협회중앙회 회장